

인삼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우선순위 분석 : 전라북도를 중심으로1)

서환석*

*대전세종연구원

e-mail: seohs@dsi.re.kr

Analysis of Policy Priorities for Development of Ginseng Industry : Focusing on Jeonbuk

Hwan-Seok Seo*

*Deajon Sejong Research Institute

요약

본 논문에서는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인삼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현재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지역 내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정책평가를 위한 평가항목을 설정하고 계층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정책의 우선순위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상품화 및 산업화, 생산구조 고도화, 치유관광 및 체험교육, 인재육성 및 거버넌스 순으로 우선순위가 도출되었다. 기후 위기 등 농업생산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에게 현장에서 도움을 줄 수 있고 지역 내 인삼산업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 서론

국내 인삼의 생산은 재배면적의 감소와 농가의 고령화, 농업인력의 감소, 경영비 상승으로 인해 생산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다. 산업화와 유통 부문에서는 복잡한 유통구조로 인해 인삼이 제값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소수의 대기업과 다수의 영세기업이 병존하는 이중구조로 인해 지역의 영세 인삼기업이 성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기상이변은 인삼의 생육환경을 어렵게 하여 저조한 수량 및 품질 저하뿐만 아니라 생산비가 크게 증가하여 인삼재배 농가의 소득 불안정을 지속시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삼산업 정책의 우선순위를 살펴보기 위해 정부 및 지자체 연구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삼산업 육성정책을 검토하고, 정책의 범위를 생산구조 고도화, 상품화 및 산업화, 관광·체험교육, 인력양성·거버넌스로 구분하여, 전문가를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인삼산업의 육성방안을 제시하였다.

2. 계층분석방법(AHP)의 평가항목 검토 및 사전조사

2.1 개요

1) 본 연구는 전북연구원의 정책과제(과제번호 : 22PR18, 전라북도 인삼산업 육성정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정책의 우선순위와 의사결정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점기준과 정책과의 연결성을 고려해야 한다. 계층분석기법(analytical hierarchy process; 이하 AHP)은 다양한 분야에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널리 이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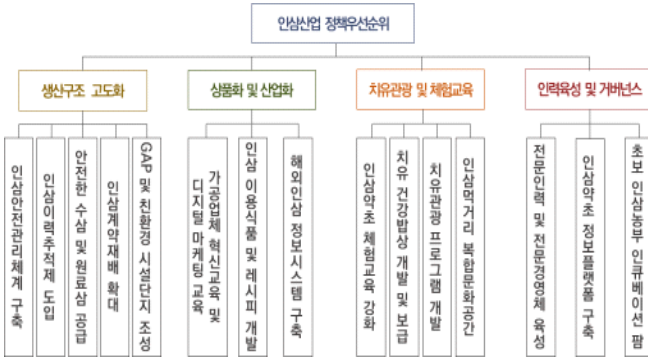
AHP 분석은 의사결정 문제에 대하여 계층구조(decision hierarchy)를 설계한 뒤에 인삼산업 전문가를 대상으로 쌍대비교(pair-wise comparison) 설문을 실시하여, 결과에 대한 일관성 비율(Consistency Ratio)을 검토 후에, 가중치를 산출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한다.

2.2 평가항목 검토

본 연구에서는 ① 인삼산업 환경변화와 정책과제(2019), ② 진안홍삼 특화발전 기본구상 연구(2021), ③ 금산인삼약초진흥원 설립 타당성 조사연구(2019), ④ 금산전통인삼농업 세계중요농업유산 브랜드 인증제 도입 연구(2020), ⑤ 인삼·약용작물 진흥체계 연구(2021), ⑥ AHP기법에 의한 충청남도 인삼산업 정책의 우선순위 : 충청남도 인삼산업 발전대책(2016~2020) 중심으로(2016)를 기초로 하여 평가항목을 설정하였다. 평가항목은 4대 분야로 구분하고 32개 세부 평가항목을 설정하였으며, 32개의 평가항목은 유사한 정책이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묶고 전북 지역정책으로서 타당성이 저해되는 항목을 제고하여 평가항목을 설정하였다.

3. 평가항목 설정

사전조사를 통해서 정책 및 사업을 도출하여 계층구조를 설정하였다. 인삼산업 육성정책의 중점 추진이 필요한 1계층을 ‘생산구조 고도화’, ‘상품화 및 산업화’, ‘치유관광 및 체험교육’, ‘인력확보 및 거버넌스’의 4대 분야로 구분하고 하위항목을 설정하였다. 세부 정책 및 사업은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니며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15개 항목을 설정하였다.



[그림 1] 정책우선순위 AHP분석 항목분류

4. 자료수집 및 분석결과

4.1 자료수집

AHP분석은 소수의 전문가 집단에게 적용하므로 인삼산업 관련 연구자, 대학교, 행정전문가, 농업인 등을 주요 조사대상으로 설정하였다.

[표 1] 조사기간 및 자료수집

전문가 패널	대학교, 연구자, 행정전문가, 농업인 등	
조사 기간	델파이	2022년 5월 12일 ~ 2022년 5월 13일 (2일)
	AHP 본 조사	2022년 5월 17일 ~ 2022년 5월 20일 (4일)
자료수집	E-Mail을 통한 자료수집	

4.2. 조사대상자 특성 분석결과

본 AHP 조사의 성별은 남성이 11명(73.3%), 여성이 4명(26.7%)이었으며, 나이는 40대가 7명(46.7%), 50대가 5명(33.3%) 순으로 나타났다. 분야는 연구기관 11명(23.3%), 공무원 3명(20.0%), 농업종사자 1명(6.7%) 순으로 나타났으며, 근무연수는 10~15년 미만인 6명(40.0%), 20년 이상이 5명(33.3%) 순으로 나타났다.

4.3. 정책우선순위 분석결과

인삼산업 정책우선순위 AHP 분석결과, 가공업체 혁신교육 및 디지털 마케팅 교육(1.994), 해외인삼 정보시스템 구축(1.174), 인삼 이용식품 및 레시피 개발(0.852), 인삼이력추적체 도입(0.776), 안전한 수삼 및 원료삼 공급(0.693) 순으로 나타났다.

[표 2] 전라북도 인삼산업 정책 및 사업의 AHP 우선순위 총괄

1단계 중점기준	중요도 (A)	순위	2단계 세부사업평가	중요도 (B)	순위	조정 중요도 (A*B)*10	우선 순위 (총괄)
생산구조 고도화	0.308	2	인삼안전관리체계 구축	0.200	3	0.616	8
			인삼이력추적체 도입	0.252	1	0.776	4
			안전한 수삼 및 원료삼 공급	0.225	2	0.693	5
			인삼계약재배 확대	0.139	5	0.428	10
			GAP 및 친환경 시설단지 조성	0.184	4	0.567	9
상품화 및 산업화	0.402	1	가공업체 혁신교육 및 디지털 마케팅 교육	0.496	1	1.994	1
			인삼 이용식품 및 레시피 개발	0.212	3	0.852	3
			해외인삼 정보시스템 구축	0.292	2	1.174	2
치유관광 및 체험교육	0.155	3	인삼약초 체험교육 강화	0.138	4	0.214	15
			치유 건강탐방 개발 및 보급	0.416	1	0.645	7
			치유관광 프로그램 개발	0.254	2	0.394	11
			인삼약거리 복합문화공간 조성	0.192	3	0.298	14
인력육성 및 거버넌스	0.135	4	전문인력 및 전문경영체 육성	0.492	1	0.664	6
			인삼약초 정보 플랫폼 구축	0.262	2	0.354	12
			초보 인삼농부 인큐베이션 팜 육성	0.247	3	0.333	13

5. 결론

지역보다는 정부 주도의 인삼산업 정책은 구체적인 성과와 인삼산업 생태계 조성에는 한계를 보여 왔다.

전북의 인삼농가는 3,066호(20년 기준)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으며, 인삼 생산액은 22%로의 국내 인삼의 주산지이다.

현재 전북의 인삼생산은 농업경영비의 지속적 증가와 재배면적의 감소, 기후변화로 인해 인삼의 생장에 타격을 받고 있다. 전북의 인삼생산량 중에 80%는 금산 도매시장으로 유통되고 있으며 전북 도내에서 유통되는 수삼은 오히려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전라북도 인삼산업 발전을 위해 중장기 정책과제 수립이 필요하며, 인삼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의 관점에서 생산구조 고도화, 상품화 및 산업화, 관광 및 체험교육, 인력육성 및 거버넌스 등 크게 4가지 분야로 구분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참고문헌

- [1] 김성우 외, “인삼·약용작물 진흥체계 연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21년.
- [2] 성명환·강경수·임병옥, “인삼산업 중장기 발전대책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8년.
- [3] 성명환 외, “인삼시장 소비형태 변화와 인삼산업 육성을 위한 인삼산업법 전면 개정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6년.